스터디 12.10.(화) 21:30

참고:

https://nightlies.apache.org/flink/flink-docs-release-1.15/docs/learn-flink/overview/

카프카, 플링크, 스파크, + 에어플로우

스트림 처리의 이해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흐름.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데이터 스트림의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클릭 로그, 증권거래소의 주식 거래, 공장의 센서 데이터 등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첫 번째는 배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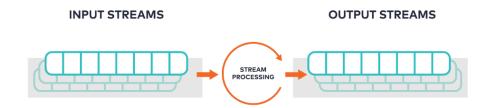
정해진 크기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예를 들어, 하루 동안의 판매 데이터를 모아서 밤중에 분석하는 것

→ 이 방식은 실시간성이 떨어짐.

두 번째는 스트림 처리. 데이터가 발생하자마자 처리하는 방식이기에 실시간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신용카드 부정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



Apache Flink란 무엇인가?



Flink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분산 처리 시스템

플링크(Flink)는 독일어로 민첩함을 뜻하는 단어. Exactly-once의 이벤트 처리를 보장하는 네이티브 스트림 방식으로, 지연 발생이 적고 처리량은 높으며 비교적 사용하기 쉬운 이점이 있음...

일괄처리 기능도 제공하지만 스트림 프로세싱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

1. Ja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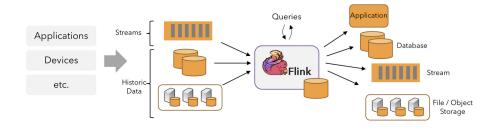
- Flink의 주요 개발 언어로, 가장 완벽한 기능 지원
- DataStream API, DataSet API, Table API 모두 사용 가능

2. Scala

- Java와 동일한 수준의 기능 지원
- 간결한 문법으로 코드 작성 가능

3. Python (PyFlink)

- Table API와 DataStream API 지원
-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유사한 빅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Spark vs Flink

핵심 차이점:

• 처리 방식

- 。 Spark: 미니 배치 처리 방식으로 작은 단위로 모아서 처리
- 。 Flink: 리얼 스트리밍 처리로 데이터를 즉시 처리
- 지연시간(지연 시간이 낮을수록 데이터 전송이 빠르다고 보면 될 것.)
 - 。 Spark: 수초 단위 지연 (미니배치 처리 때문)
 - Flink: 밀리초(1초 X 천 분의 1) 단위 지연 (실시간 처리)

• 상태 관리

- Spark: RDD를 통한 상태 관리
- 。 Flink: 더 효율적인 내장 상태 관리 시스템

적합한 사용 사례

- Spark: 대규모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배치 처리
- Flink: 실시간 처리,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연속 ETL
 - → 특히, 사기 탐지, 이상 탐지, 실시간 UX 개인화,품질 모니터링, 라이브 데이터의 임시 분석

선택 기준

- 1. 실시간성이 매우 중요한 경우 → Flink
- 2. 배치 처리가 주요한 경우 → Spark
- 3.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이 중요한 경우 → Spark (더 큰 생태계)

Flink는 설정이 더 간단하고 강력한 윈도우 연산자를 제공, Spark는 더 넓은 생태계와 통합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Flink 핵심 특징

1. Exactly-once(정확하게 한번) 처리 보장

- 데이터 손실이나 중복 처리 없음
- 장애 상황에서도 정확한 처리 보장

2. 장애 복구 메커니즘

• Checkpoint: 주기적인 상태 저장

• Savepoint: 수동으로 생성하는 백업 포인트

• 장애 발생 시 최근 상태에서 자동 복구

3. 상태 관리 방식

- 내부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
- 메모리나 디스크에 상태 저장 가능
- 분산 환경에서도 일관성 유지

4. 확장성 (Scalability)

• 클러스터 환경에서 수평 확장 가능해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적합.

어느 BE 엔지니어: "바퀴가 이미 있는데, 바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 공식 Docker 이미지 활용

2가지 이유

1. 안정성

: 공식 이미지들은 각자 맡은 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테스트 하고 있고, 버전 관리가 잘 되어 있기에 필요한 버전을 쉽게 취사선택 가능

2. 효율성

: 환경 설정 시간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리소스 등을 집중할 수 있고, 설정 오류나 호환성 및 의존성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이렇 게 사용하는 경험도 중요하다.

(+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얘기해주셨음. 글로벌 캐싱 전략 (레디스 등), 로컬 캐싱 전략(코드 단), 허용되지 않는 요청 거부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해야한다면 고려해야 하는 것들.)

플링크 설치를 위한 예시 코드

```
services:
  jobmanager:
    image: apache/flink:1.16.1
    ports:
        - "8081:8081"
    command: jobmanager
    environment:
        - JOB_MANAGER_RPC_ADDRESS=jobmanager

taskmanager:
    image: apache/flink:1.16.1
    depends_on:
        - jobmanager
    command: taskmanager
    environ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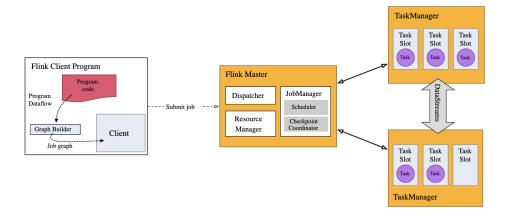
- JOB_MANAGER_RPC_ADDRESS=jobmanager

1. JobManager (작업 관리자)

- 전체 작업 감독
- TaskManager에 작업 분배
- 웹 UI(8081 포트)로 모니터링 제공

2. TaskManager (작업 수행자)

- 실제 데이터 처리 수행
- 여러 개 실행 가능
- JobManager와 지속적 통신



주요 포트

- 8081: 웹 대시보드 포트
- 6123: JobManager RPC 포트
- → Remote Procedure Call, JobManager가 TaskManager들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포
- → 작업 할당, 상태 업데이트, 하트비트 체크 등의 내부 통신에 사용
- → 예시: JobManager가 TaskManager에게 새로운 작업을 할당하거나, TaskManager가 작업 상태를 보고할 때 사용
 - 6124: BlobServer 포트
- → 대용량 파일이나 객체(Binary Large Object)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포트
 - JAR 파일 전송 (Flink 작업을 포함한 실행 파일)
 - 큰 설정 파일 전송
 - TaskManager들 간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
- → 예시: 새로운 Flink 작업을 제출할 때 JAR 파일을 각 TaskManager에 배포하는 데 사용
- 6125: QueryableState 포트
- Flink 작업의 현재 상태를 외부에서 조회할 때 사용하는 포트
- 실시간으로 작업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
- 예시:
 - 。 현재 처리 중인 데이터의 상태 확인
 - 。 특정 키에 대한 최신 집계 결과 조회
 - 。 디버깅이나 모니터링 목적으로 상태 정보 조회
- 1. **애플리케이션 제출**: 사용자가 작성한 Flink 애플리케이션은 Client를 통해 JobManager에게 제출됩니다.
- 2. **작업 계획 생성**: JobManager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계획(Execution Plan)으로 변환하고, 이를 실행 그래프(Execution Graph)로 변환합니다.

- 3. **태스크 할당**: JobManager는 Execution Graph를 여러 태스크(Task)로 나누어 TaskManager에게 할당합니다.
- 4. **태스크 실행**: TaskManager는 할당받은 태스크를 실행하며, 태스크 간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 5. 상태 관리: 상태 저장이 필요한 태스크는 State Backend를 통해 상태를 관리합니다.
- 6. 체크포인트: 주기적으로 체크포인트를 생성하여 장애 복구를 대비합니다.
- 7. 장애 복구: 장애 발생 시, 체크포인트를 이용해 작업을 복구하고 실행을 재개합니다.
- 8. **결과 출력**: 처리된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싱크(Sink)에 저장되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Flink 대시보드 띄우기는 추후에.